

시청자가 살고 싶은 집 '구해줘 홈즈'

예능 소재로 끌어들이 부동산 MBC TV 프로그램 인기 일반인의 집 구하기 의뢰 연예인들 발품 팔아 찾아줘 팀 대결로 홍보 위험 줄여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을 예능으로 끌고 온 아이디어는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발했다. 동시에 놀랄 만큼 안정적이다.

지난 2월 설 연휴 파일럿으로 선보였던 MBC TV 예능 '구해줘 홈즈'는 일반인의 의뢰인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집 구하기를 부탁하면 연예인들이 발품을 팔아 대신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파일럿 당시부터 참신하다는 호평을 얻으며 지난달 31일 첫 정규 방송을 시작했고, 이후 4~6%대 시청률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구해줘 홈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프로그램이 안겨주는 대리만족이다. 비단 궁극의 '드림하우스'까진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고 싶어 하는 것은 현대인이자면 누구나 가지지 마련인 보편적인 욕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어하우스,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소개하며 '내가 저런 집에 산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특히 지역과 의뢰인을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대리만족 입입의 여지를 넓힌 것은 특징이자 장점이다.

자칫 수도권 일색으로 뻗어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1회부터 부산으로 이사를 원하는 의뢰인을 선정하며 나름의 파격을 시도했고, 독립을 꿈꾸는 '예비 1인 가구' 청년부터 5인 가족까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나친 홍보로 흘러갈 위험이 있지만, 연예인 출연자들이 '복' 팀과 '덕' 팀으로 나눠

경쟁하는 포맷으로 홍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은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로구 고척동의 오래된 가옥을 살펴본던 중 덕팀 노홍철이 엔틱한 인테리어를 장점으로 소개하자 복팀 팀장 박나래는 "옛집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있다"고 지적했고, 4회에서 김광규가 창문이 난 욕실 욕조에 누워 '뷰가 좋다'고 치켜세우자 장동민은 "겨울에 난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집의 장점을 늘어놓고 싶은 팀과 눈에 불을 켜고 단점을 찾아내려는 상대 팀의 대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덕분에 균형이 맞춰진다.

박나래, 김숙, 김광규 등 여타 예능에서 강한 생활력을 지닌 캐릭터로 인기를 끈 예능인들은 '구해줘 홈즈'에 안정감을 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들은 집을 구하러 다니며 가스레인지

가 몇 구인지, 수압은 어느 정도인지,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얼마나 갖춰졌는지, 세면대와 배기가 단가가 낮은 '짜구려'는 아닌지, 집에서 편의시설과 교통시설까지는 몇 걸음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타일이 깔린 거실 바닥을 칭찬하는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먼지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줄눈 사공이 필요한 것 같다는 김숙의 지적은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감을 키우기까지 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8일 "이전까지 예능이 부동산을 다룰 때 '러브하우스' 같이 집을 기부하는 콘셉트로 다뤘다면, '구해줘 홈즈'는 실제로 있는 집을 찾아 보여주는 데서 오는 정보의 힘과 몰입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은 예민한 소재인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연협뉴스

광주국악방송 5월 두 차례 공개방송

2일 '있을 때 잘해' 송재영 명창 공연 6일 '운조루 봄 풍류' 이철호 명인 출연

광주국악방송(FM 99.3MHz)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일과 6일 두 차례 공개방송을 연다.

먼저 지정남씨가 진행하는 '남도마실'은 2일 오후 1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공개방송 '있을 때 잘해'를 연다.

이날 무대에서 송재영 명창과 김현서씨는 효의 마음이 담긴 심정가를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판소리연구회 소리담은 흥겨운 남도민요를 무대에 올리고 이희정 밴드와 타악그룹 열수가 분위기를 돋운다. 관객 노래자랑, 우리 소리 배우기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

했다. 이날 공연 실황은 8일 오전 9-11시에 방송된다. 전석 무료.

또 국악방송 특별기획 '고전의 숨결'의 하나로 6일 오후 4시 구례군 운조루 고택에서 '운조루 봄 풍류'가 열린다.

300년이 넘는 역사의 민속문화재 제8호 구례 운조루 고택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풍류의 대가 전추산재 단소, 대금, 가야금의 특성을 간직해 오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출풍류의 전바탕을 만날 수 있다. 음악평론가 현경재의 진행으로 구례향제출풍류 예능보유자 이철호 명인을 포함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이 출연한



송재영 명창 이철호 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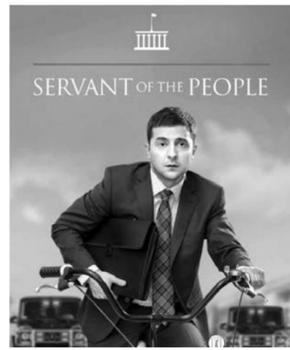
다. 국악방송은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을 24시간 전통음악 듣는 날로 지정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특별기획 '고전의 숨결'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은 라디오, 국악방송 웹TV, 페이스북 북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전석 무료. 국악방송 주파수 진도·목포94.7MHz, 전주 FM 95.3MHz, 남원 95.9MHz.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크라이나 대통령 코미디언 젤렌스키 출연 드라마

광주MBC '국민의 중' 12부작 오늘부터 방영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코미디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출연한 드라마가 광주MBC를 통해 방영된다.

광주MBC는 12부작 드라마 '국민의 중' (사진)을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한다. '국민의 중'은 지난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코미디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극중에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고교 역사 교사를 연기했다. 정치 경력이 없는 42세 젤렌스키는 최근 치른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73.21%를 득표해 24.46% 득표에 그친 페트로 코로셴코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는 드라마에서 재벌 척척 등 개혁 정치를 펼치는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됐다.



젤렌스키가 연기한 소박하고 겸손한 교사 바질리는 나라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고 그 모습을 학생이 몰래 찍어 유튜브에 올리자 순식간에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바질

'녹두꽃' 첫 방송부터 민란

단숨에 11.5% 출발

SBS TV 새 금토극 '녹두꽃'이 방송 첫 회에서 타오르는 햇빛을 든 민초들의 행렬을 그려내며 단숨에 10% 시청률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된 '녹두꽃'은 전국 단위 가구시청률 8.6%~11.5%를 기록했다.

1회에서 이복형제 백이강(조정석 분)·이현(이수민)의 과거 회상 장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전달하는 데 총신했다.

일본에서 유학을 마친 이현이 가족들에게 성냥을 보여주며 조선도 일본처럼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1시 tvN에서 방송한 '막돼먹은 영애씨 17'은 시청률 2.9%(유료 플랫폼)로 17번째 시즌의 막을 내렸다. JTBC 금토극 '아름다운 세상'은 3.334%(유료 플랫폼)를 기록했다. /연협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역사저널 그날(재)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2019 세계양궁월드컵 제1차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보 모우야 놀자	
4	00 시사간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보 모우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25 빠샤 매카트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55 SBS 8 뉴스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육탄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국민 여러분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스페셜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러리 25 스포츠크트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가 폴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00 레이다버그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명계 회담밥과 들깨 취나물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명 유치원1~2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꼬마히어로 슈퍼잭	<노래가 흐르는 남미 기행 1부 나와 함께 춤을 부에노스아이레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탐험 구조대	<불, 청춘을 만나다 1부 달콤살벌한 산골살이>
09:15 뽀뽀뽀 뽀로로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원더볼츠	16:15 짹과 팡	22:45 글로벌 이빨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4:50 세계의 드라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안심찜과 콘샐러드>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48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일 뿐이다. 60년생 호과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72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흥풍이로다. 84년생 길사가 모아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6, 08	42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라. 54년생 형세에 지배 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66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78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오리라. 90년생 아무리 마음이 앞서더라도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3, 71
37년생 부수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된 요건에 충실하자. 49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지나치다면 반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73년생 관계의 설정과 활용에 유의하라. 85년생 생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97, 85	43년생 지금으로써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55년생 더 악화 되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67년생 과감하게 전환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79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형국을 유지 한다. 91년생 총동원해야 성사 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5, 07
38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50년생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62년생 뜨거운 화젯거리가 보인다. 74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86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로 정체되는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16, 51	44년생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6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68년생 변화무쌍한 성국이니 순발력이 절실하느니라. 80년생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 92년생 작심 했다면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45, 02
39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51년생 비울수록 새롭게 채워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75년생 새로운 인연이 보인다. 87년생 편협한 사고가 모순에 빠지게 한다. 행운의 숫자 : 65, 40	45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57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69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정리해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81년생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93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5, 90
40년생 자신이 행한 만큼에 비례할 것이다. 52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라. 64년생 귀가 솔깃해질 일이 생기겠다. 76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리라. 88년생 통상의 사례를 깨는 파격적 구도가 조성될 징후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78	34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46년생 동무 따라 강남 갈수도 있느니라. 58년생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면역계 할 것이다. 70년생 자신이 발원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82년생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17
41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라. 53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주도면밀한 진행을 해야 한다. 65년생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77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89년생 현재에 국한시키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67, 47	3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매사가 풀리겠다. 47년생 깨달음이 있겠다. 59년생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한 시간만 흘러보낼 수다. 83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38,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